

“오월 광주로 세상 걸어갈 길 찾게 됐다”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김준태 | 생명과학 | 1만5000원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김준태 시인에게 광주 5·18은 전쟁이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들의 총기에서 발사된 수많은 탄약과 그 탄약에 목숨을 잃어간 이들을 지켜본 건 그가 참전했던 베트남전쟁에서 목격한 참담한 실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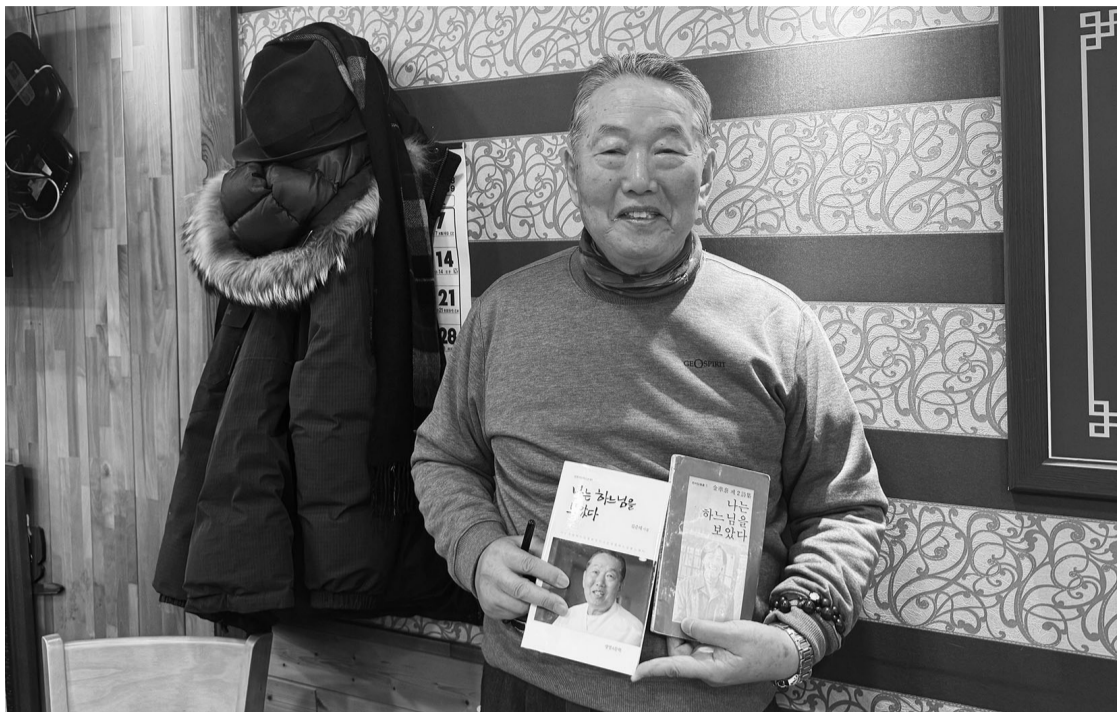
“오월 광주를 통해 세상을 걸어갈 길을 찾게 됐다. 그 길은 희망이었고 사랑이었다.”

시집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복간을 맞아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그는 5·18이 그에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시인은 '오월시인'으로도 불린다. 1980년 6월2일 당시 전남매일신문 1면에 실린 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는 동료 교사 부인이었던 임신부 최미애씨의 죽음을 정면으로 다룬다. 계엄군 검열관들은 105행짜리 시를 33행으로 축약했고 제목도 '아아, 광주여!'로 줄였다. 이 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해외에도 오월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그는 광주 5·18 이듬해인 1981년 10월 시집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를 펴냈다. 1980년 5월부터 1981년 5월까지 썼던 시들을 묶은 것이다.

다시 펴낸 이번 시집에는 영적 체험과 역사적 체험



김준태 시인이 지난 18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시집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을 분리하지 않고 내재된 하늘과 일체를 노래하며 민중의 한을 풀어낸 시들이 담겼다. 특히 시와 인간, 세계와 생명을 유기적 관계로 풀어내 문학사적 의미가 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시 '지리산 여자'는 실제 그가 지리산을 탐방하며 쓴 작품이다. 한국전쟁 당시 한 처녀가 지리산 초동리에 사는 산신령을 만나 수많은 아이를 잉태하는 이

야기를 주제로 한다. 이는 당시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그는 시의 배경을 '지리산'이 아닌 '무등산'으로 하려고 했지만, '무등산'을 넣으면 책이 출간되지 않았던 일종의 불운을 때문에 '지리산'을 선택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의 시집이 복간되는 데 43년이란 세월이 걸렸

다. 김 시인에게 “아,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라고 다시 말하는 건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국 복간을 결심한 그는 이번 시집이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독자들에게 선물이자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건네는 작은 위로가 되길 희망했다.

김 시인은 “인간의 몸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고 수천년의 DNA가 흐른다. 작품 제목에 나온 '하느님'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며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등의 표현은 ‘인간의 잔혹함이 신을 죽였다’, ‘너의 눈에는 신이 안 보이니 신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역설법”이라고 강조했다.

생이지지(生而知之)를 예로 들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을 배우고 태어난다는 것이 김 시인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달 일어난 12·3 내란사태에 대해 “하느님이 지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현실을 현재 서울의 시민들이 목격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광주의 오월을 겪었던 우리에게 계엄은 ‘두려움’ 보단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1948년 해남에서 태어났다. 1969년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고 이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군사정권 시절, 저항시를 신문에 게재한 이유로 강제 해직당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전남일보와 광주매일신문에서 데스크를 맡았고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지낸 뒤 5·18기념재단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광주 동구에 자리한 전일빌딩245 3층 디지털 도서관에서 시 쓰기와 번역 작업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글·사진·박찬기자

“한 사람의 지혜를 듣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전세계에 알리다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

정지호 | 라이트라이프 | 1만3500원



방송작가이자 여행작가로 활동하던 정지호 작가가 인터뷰 에세이로 찾아왔다. 방송과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

여 온 정 작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13명을 인터뷰하며 되새긴 삶의 의미와 인생의 지혜를 이 책을 통해 오히려 전한다.

신문사 기획 연재로 시작한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식과 함께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 사회·문학·철학·경제·과학 등 각 분야에서 중형무진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만나고 싶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에게는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다고 했다. 우리가 힘든 여행의 기억을 잊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이야기하는 자아 때문이다. 정 작가는 이야기를 찾는 사람이다. 강바닥의 모래를 체로

체서 사금

을 찾아내듯이,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걸러낸다. 그가 찾아낸 13편의 이야기는 힘들고 지치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힘이 있다.

정 작가는 그간 TV 다큐멘터리부터 여행, 공연,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섭렵하며 멀티플레이어 작가로 살아오다 현재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와 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자로 활동 중이다.

그는 또한 TV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6시 내고향', '굿모닝 대한민국', '콘서트 필', '됐다! 용세프', '고지식만담회', '생방송 토론740'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번 에세이 줄간은 듣고, 말하며 느꼈던 사유하는 즐거움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작가는 “한 사람의 지혜를 듣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공부라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대화하며 새삼 깨달았다”며 “나를 일으켜 세운 13편의 특별한 대화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지명관일기 1

지명관 | 소명출판 | 3만5000원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여파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문인들의 작품과 투사들을 조명하는 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언론인이자 학자였던 지명관 선생은 지난 2022년 1월1일 향년 98세의 나이에 별세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다.

이 작품은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이던 당시 그가 'T·K생'이라는 필명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던 시기에 작성한 일기다. 그가 이같은 필명을 사용한 이유는 국내 정보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

다. 또한 그가 이 일기를 작성하던 시절은 이와나미시점이 발간하는 월간지 '세카이'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연재를 게재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투쟁의 생생한 실상을 알리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일본·독일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알렸다.

이번에 간행한 제1권에는 1974년 11월 1일부터 1976년 12월29일까지의 기록이 수록됐다. 1974년은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인 문세광 사건이 발발한 해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첫날 저자는 사건의 영향으로 기록물이 압수됐을 때 벌어질 동지들이 처할 운명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은밀하게 보관하기 위해 A4 사이즈 루즈리프

호라이즌

배리 로페즈 | 북하우스 | 3만5000원

전미 도서상 수상 작가 배리 로페즈가 생전 마지막 발표한 역사 '호라이즌'이 국내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여행을 통해 경험한 사유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북극·남극·북태평양·남태평양·아프리카·호주 등 여섯 지역을 갈무리해 하나의 교향곡처럼 아름답게 재구성해 냈다. 저자에게 여행은 지혜를 모으는 활동이자 자신을 바꾸는 행동이다. 익숙한 것의 경계를 넘어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그는 눈앞의 경이로운 풍경을 목격하고 길 위에서 낯선 것들을 마주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간이 노정하는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끝내 초월한다. 생생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보여주는 지구 곳곳의 풍경과 사람, 과거와 현재의 조우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박찬기자

다.

이와나미시점이 발간하는 월간지 '세카이'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연재를 게재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투쟁의 생생한 실상을 알리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일본·독일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알렸다.

이번에 간행한 제1권에는 1974년 11월 1일부터 1976년 12월29일까지의 기록이 수록됐다. 1974년은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인 문세광 사건이 발발한 해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첫날 저자는 사건의 영향으로 기록물이 압수됐을 때 벌어질 동지들이 처할 운명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은밀하게 보관하기 위해 A4 사이즈 루즈리프

최소한의 한자 어휘

권승호 | 코리아닷컴 | 1만9000원

한자에 약한 건 초·중·고등학생들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소위 '성인'이 된 어른들도 더 이상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30년 넘게 국어를 가르치며 한자어 풀이 공부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책은 사회생활에서 상식이자 필수 교양으로 통하는 한자 어휘 수업으로 기능한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공사와 어휘력부터 매체에서 접하는 시사, 사자성어까지 주요 한자어휘 112개를 선별해 전달한다. 한자 세대 아닌 이들이 사회로 나가 만나게 되는 다수의 한자어에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필수 한자어들이 책에 포함됐다. 독자들은 한자의 의미를 짚어 보면서 단어를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마주할 것이다. 박찬기자

에 만년필로 쓴 일기는 모두 4등분으로 접은 흔적이 남아 있다.

4명의 역언어는 이번 '지명관일기' 출간이 당대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던 일본과 해외에서 전개된 민주화 투쟁에 대한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조감도를 그려내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으로 망명했던 지명관 선생의 정신과 지혜는 오늘날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던 국민들로 하여금 용기를 준다. 국내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자 마침내 귀국할 수 있었던 그는 은화하지만 분명하고 확고한 성품을 보여준 바 있다.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현재, 그의 정신이 오히려 녹아 있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용기의 근간이다. 박찬기자

쇼는 없다

이릉 | 광화문출판 | 1만6800원

1980~1990년대 프로레슬링을 접했던 세대에 강한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 출간됐다. 15년간 스포츠신문 등에서 기자로 활동한 저자의 첫 장편소설이자 제12회 수림문학상 수상작이다. 이야기는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워리어'가 주인공을 찾아오며 시작된다. 워리어를 시작으로 1990년대를 주름 잡던 WWE 스타들이 이태원으로 집결한다. 주인공은 이 대회에 얼떨결에 참가하고 그의 중학교 시절 씬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속적을 상대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과거의 영웅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세대에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연말 선물로 찾아온다. 박찬기자

